

근대 중국의 서양서 번역·보급과 한국 근대 학문에 미친 영향 연구

허재영*

|| 차례 ||

- I. 서론
- II. 근대 학문과 언어 문제
- III. 서양서 번역과 보급 상황
- IV.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1870~1880년대 중국의 서양 지식 전파와 관련된 대표적인 문헌인 『격치휘편』(상해 격치서원 발수(發售))과 『만국공보』(상해 미화서관 파인(擺印))를 중심으로, 근대 학문 수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 문제와 서양서 번역 양상을 고증하는 데 목표를 둔다.

근대 지식 형성 과정에서 중국의 서양서 번역은 서양 선교사나 외교관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식인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사였다. 『격치휘편』에 등장하는 ‘역서사략’은 상해 강남 제조총국의 번역관에서 이루어진 역서를 소개하는 글로, 1870년대 서양서 번역 실상을 잘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서양 선교사와 외교관을 중심으로 조직된 익지서회에 서도 전교와 지식 보급 차원에서 서양서 번역 및 저술 활동에 힘을 기울였다. 이 저서들은 서양인에 의해 저술되었지만 중국어로 출판되었다는 점에서, 번역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1868년 번역관 설립 이후 중국 근대 지식 형성 과정에서 서양서 번역을 주도했던 단체는 ‘격치서원’, ‘익지서회’, ‘광학회’뿐만 아니라 전교를 목적으로 한 ‘중국성교서회(中國聖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敎書會)와 같은 단체도 있었다. 『만국공보』 1879년 6월 14일자 제543권에 따르면, 이 단체는 1879년 중국 각 성의 전교를 목적으로 상해에 설립되었으며, 매년 중국과 외국의 신문을 모아 연회 자료집을 발행했으며, 윌리엄 마틴의 『천도소원(天道溯原)』, 『천도핵교(天道覈較)』 등의 종교서를 지속적으로 인출(印出)하였다. 이와 같이 서양의 종교서와 격치서를 번역하는 일은 중국 근대 지식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으며, 양적인 면이나 격치서의 질적인 면에서 기존의 학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다. 이들 번역서는 1895년 이전부터 국내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1895년 학부 설립 직후 상당수의 광학회 서적을 번각(翻刻)하거나 언역(諺譯)하여 교과서로 사용했음을 고려할 때, 한국의 근대 지식 형성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번역, 격치회편, 만국공보, 광학회, 근대 지식,

I. 서론

근대 학문 형성 과정에서 번역은 지식 형성과 보급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개항 직후 이른바 개화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외국 서적의 국문 번역이 필요함을 주장한 경우가 빈번히 발견되는데, 1882년 지석영의 ‘시무에 대한 상소문’이나 1888년 박영효의 ‘건백서’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1991)의 『번역의 사상』(岩波書店, 임성모 역 『번역과 일본의 근대』, 이산)에 따르면 일본의 번역 문화는 1700년대 오규 소라이의 『역문전제(譯文荃蹄)』나 메이지 시기 후쿠자와유키지(福澤諭吉), 마바다쓰이(馬場辰猪) 등의 서양서 번역 등이 일본의 근대 학문을 형성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아편전쟁 이후 1860년

대 서양 선교사와 외교관을 중심으로 한 실용지식전파회가 성립되었고, 1868년 미국 감리교회 전교사였던 알렌(중국명 林樂知)을 중심으로 『중국 교회신보』(후에 『민국공보』)가 창간되었으며, 1872년 북경에서 미국 전교사 윌리엄 마틴(중국명 丁韪良), 영국 전교사 요셉 에드킨스(중국명 艾約瑟) 등이 『중서견문록』(1876년 이후 『격치휘편』)을 창간하여 본격적으로 서양 학문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1870년대를 전후한 중국과 일본의 학문 교류 상황인데, 중국의 대표적 개항지인 상해와 일본의 나가사키는 정기적인 증기선이 왕래함으로써 지식 교류가 빈번했다. 메이지 초기의 일본과 아편전쟁 직후 서세동점기 태평천국의 난, 양무론이 대두한 중국의 상황에서 서양 지식 수용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번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근대 지식 형성 과정에서 번역은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새로운 지식의 유입에 따른 번역어의 형성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번역된 지식이 어떻게 유통(또는 활용)되는가이다. 이 문제는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한국의 근대 지식 형성 과정에서 모두 대두되었던 문제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선행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번역어의 형성에 대해서는 오미영(2011)의 『한일 초기 번역성서의 어학적 연구』(제이앤씨), 히로다카시(2005)의 『개화기 한국어 성서의 번역어 연구』(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등과 같은 성서 번역어나 최경옥(2005)의 『번역과 일본의 근대』(살림, 일본인의 연구를 번역한 야나부 아키라·김옥희 옮김(2011)의 『번역어의 성립』(마음산책) 등의 저서, 이준환(2012)의 『개화기 및 일제 강점기 영한사전의 미시 구조와 국어 어휘 및 번역어의 고찰』(『대동문화연구』80), 최경옥(2007)의 『일본 근대 번역한자어의 성립과 한국수용』(『번역학연구』8), 권보드래(2001)의 『번역어의 성립과 근대』

(『문학과 경계』1-2) 등의 일부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있을 뿐이다.

일본이나 중국의 번역 서양서의 유통 과정에 대한 연구도 번역서의 양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광린(1979)의 『한국개회사연구』(일조각)에 등장하는 1880년대 번역 서양서 또는 중국인 저술의 서적이 유입되는 과정에 대한 기술이나 양일모(2004)의 『근대 중국의 서양 학문 수용과 번역』(『시대와 철학』15), 임상석(2013)의 ‘근대 계몽기 가정학의 번역과 수용」(『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7), 백옥경(2010)의 『한말 세계사 저역술서에 나타난 세계 인식』(『한국사상사학』35), 윤영도(2005)의 『중국 근대 초기 서학 번역 연구』(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효전(2008)의 『번역과 근대 한국』(『개념과 소통』1), 허재영(2015)의 『근대 계몽기 지식 유통의 특징과 역술 문헌에 대하여』(『어문논집』63) 등과 같이 특정 학문 분야의 번역물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가 없지는 않지만, 근대 시기 중국과 일본의 번역서가 한국에 유통되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이처럼 번역어 성립 과정이나 번역서의 수용 과정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문헌 고증의 어려움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에서는 일본에 조사(朝使)를 파견하고 중국의 문물을 시찰한 시점인 1880년대 초부터 갑오개혁에 이르기까지의 지식 교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문헌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이 분야의 연구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판단되는데, 이 시기 지식 교류 상황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자료는 『한성순보』, 『한성주보』, 『이언언해』 등과 같이 근대 지식 관련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대 지식과 번역과의 관련성, 번역 상황과 유통 상황 등의 전반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1870~1880년대 중국의 서양 지식 전파와 관련된 대표적인 문헌인 『격치회편』(상해 격치서원 발수(發售))과 『만국공보』(상해 미

화서관 파인(擺印))를 중심으로, 근대 학문 수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 문제와 서양서 번역 양상을 고증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러한 고증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번역 서양서가 한국의 근대 지식 형성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는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다.

II. 근대 학문과 언어 문제

1. 서학 번역의 문제

근대 지식 형성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은 모두 자의이든 타의이든 서학(西學)의 번역과 수용이 필요했다. 이광린(1979), 강재언(1981) 등과 같은 선행 연구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서학 수용은 서양의 교리(敎理)와 과학(科學)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¹⁾ 한국에 전래된 서양서가 1600년대 이후 중국에서 간행된 서양 종교서 및 학술서였듯이, 중국에서의 서학 수용 과정에서도 종교와 학술서 번역 문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다. 특히 아편전쟁 이후 중국에서의 서학 수용은 서양 선교사 및 외교관들의 역할이 컸다. 그 가운데 『격치회편』은 서양 과학을 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만국공보』는 서양 교리를 소개하는 데 많은 비중을 두었다.²⁾

1) 강재언 저·정창렬 역(1981), 『한국의 개화사상』(비봉출판사)에서는 조선에 건너온 서양 서목을 ‘서양 학술서’와 ‘천주교 및 서양 윤리서’로 구분하여 정리한 바 있다.

2) 이 두 매체는 근대 계몽기 한국의 학문 형성 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격치회편』에 대한 국내의 종합적인 연구 사례는 찾기 어려우며, 학술지 논문 가운데 오순방(2003)의 ‘과학계몽에서 소설계몽: 만청시기 프라이어의 계몽 활동’(『중국소설 논총』18, 한국중국소설학회)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 소장된 『격치회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는 도서번호 3121-1(50책)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초기 월간 형태로 발행된 이 신문은 일정한 체제 없이 격치(格致), 기기(機器), 문답(問

1876년 창간된 『격치휘편(格致彙編)』1-1에서는 설촌 서수(徐壽)가 찬(撰)한 서문이 들어 있다. 이 서문은 1896년 창간된 독립협회의 회보인 『대조선독립협회회보』 제3호(1896.12.31.)에도 전재(轉載)된 바 있는데, 영국인 프라이어(중국어명 傅蘭雅)가 이 잡지를 발행한 취지를 싣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프라이어는 “중국에 건너온 지 10여 년에 중국의 언어 문자를 통효하고, 서양어로 된 격치학 서적에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가려, 중국어로 번역하여 월 1권씩 발행”한다고 하면서, 책의 이름을 ‘휘편(彙編)’이라고 한 것은 서양의 여러 서적과 신문에서 중요한 지식을 발취하여 집성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음을 살펴보자.

(1) 格致彙編 序

(前略) 傅蘭雅先生 英國之通儒也. 來遊中國十餘年 通曉中國言語文字 特將西文格致諸書 擇其有益於人者 繙譯華文 月出一卷 問世 蓋欲使吾華人 探索底蘊 盡知理之所以 然而諸實用吾華人 固能由淺入深 得其指歸 則受益豈能量哉. 所謂 格致之有益於人 而可施諸實用者 如天文 地理 算數 幾何

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국공보』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노재식(2010)의 ‘『만국공보(萬國公報)』에 나타난 근대 중국사회의 아편문제에 대한 인식’(『중국현대사연구』47,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을 비롯한 다수의 논문과 백옥경(2012)의 ‘개항기 역관(譯官) 금경수(金景遂)의 대외인식(對外認識) - 『공보초략(公報抄略)』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41, 한국사상사학회), 설충수(2011)의 ‘『만국공보(萬國公報)』에 나타난 19세기 중국 개신교인의 신명(神名) 문제’(『장신논단』40, 장신대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차태근(2005)의 ‘19세기말 중국의 西學과 이데올로기: ‘廣學會’와 『萬國公報』를 중심으로’(『중국현대문학』33,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내 소장된 『만국공보』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화한서(Y55 46, 46A), 규장각서고(규 20003, 규중 4388, 규중 6551), 국립중앙도서관 M고1-2005-1, 2008-120(멀티미디어), 충남대 도서관, 성균관대 존경각 등에 일부가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중국에서는 2014년 상해의 상해서점출판부(上海書店出版部)에서 이 신문 전체를 영인한 바 있다.

力藝 制器 化學 地學 金鑛 武備 等此大宗也. 其餘藝術 尙有多端筆難盡述 若欲求其精奧 各有專書可考. 近數年來 上海 製造局 新譯西書于格致之門 類足稱 賅備顧 惟泰西格致之學文 天文 地理 算數 而外原以製器爲綱領 而製器之中 又以輪船爲首務 故新譯汽機發軔 所以明汽機之致用 能用必期 能造如汽機 信度汽機 必以汽機新製 乃虛體實體之權度機括門筭之肯綮 也.(下略) 부란아 선생(존 프라이어)은 영국의 유명한 학자로 중국에 건너온 지 10여년에 중국의 언어 문자를 통효하고 특히 서양어로 된 격치학 서적에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가려 중국어로 번역하여 월 1권씩을 내었는데, 세인이 그 이유를 물으니 우리 중국인으로 하여금 온진(蘊盡)의 이치를 탐색케 하고자 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우리 중국인에게 실용이 되게 하는 것이 진실로 가벼운 데서 출발하여 그 가리키는 바 심오함을 이해하니 그 이익됨을 어찌 헤아리겠는가. 이른바 격치가 사람에게 이롭고 가치 실용할 만한 것은 천문, 지리, 산수, 기하, 역예, 제기, 화학, 지학, 금광, 무비 등이 그 근본을 이롭고 같다. 그밖에 예술은 말로 진술하기 어려운 것이 많아서 만약 그 정묘하고 심오한 것을 구하고자 한다면 각각 전문 서적을 살펴보아야 한다. 최근 수년 이래 상해 제조국에서 격치 학문 분야에 대한 서양 서적을 새로 번역한 것은 가히 해당 분야를 모두 갖춘 것이라고 일컬을 만하다. 태서의 격치학문 천문, 지리, 산수, 이외 기기 제조의 강령이 되는 것과 기기 제조 중 또한 윤선이 가장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기발동』을 새로 번역하여 기기(汽機)의 효용됨을 밝힌 까닭에 능히 기기를 제조하고 기기를 신뢰함으로써 새로 제조할 수 있으니, 이에 허상과 실체의 권도(權度)를 총괄하여 짚을 띄우는 데 관계할 수 있다.

이 서문은 당시 상해 제조중국 번역관에서 번역한 서양서를 소개하고, 프라이어의 역할과 격치서 번역, 『격치휘편』의 가치 등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운규약지(運規約指)』, 『기상현진(器象顯眞)』 등 38종의 번역 서서(西書)에 대한 실용도를 간략히 소개한 점도 특징이다.³⁾ 이처럼 중국에 서양 지식이 보급되는 과정에서 번역(繙譯)은 실용 지식

전파의 주된 수단이자, 민리(民利) 추구의 근원으로 인식되었다. 『격치회편』이나 『만국공보』는 서양 선교사와 외교관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매체로 이를 잘 드러낸다.

(2) 本館告白

啓者 本館輯 格致彙編之原義 欲將西國格致之學 與工藝之法 擇其要者 譯成華文 便於中國各處之 人得其益. 卽不出戶庭 能知天下所有強國利民之事理 遠處諸君 如有疑問格致 或工藝之事 則可致書本館 如所問之事 果有益於衆人 則當依次奉答列入彙編 又如西人欲問中華之物理 則先將所問之語印入彙編閱者如有論答 可寄至本館代爲列入答之. 西國有專論格致 與工藝之新報 數十年來 上下各等人 得其大益. 余望中國亦能如此. (下略) 알리고자 하는 것은 본관이 편집한 『격치회편』의 본뜻은 장차 서국의 격치학과 공예법 가운데 그 중요한 것을 가려 중국어로 번역하여 중국 각처에 보급하여 사람이 그 이득을 보게 하는 데 있으니, 곧 집밖을 나가지 않고도 능히 천하 강국이 백성을 이롭게 하는 원리를 알게 하고, 먼 곳의 여러 사람들이 격치나 공예에 의문이 있으면 가히 본관에 와서 묻고 그로 인해 인민들에게 이로움이 있게 하면, 곧 마땅히 이에 따라 회편에 신는다. 또 서양인이 중국의 사물과 원리에 대해 묻고 싶으면 묻는 말을 인쇄하여 회편을 보는 것이 논의에 답하는 것과 같이 하며, 가히 본관에서 이를 열입하여 답하게 한다. 서국에는 격치와 공예를 전문으로 하는 신문이 있어, 수십 년 이래 상하의 각 계층 사람들이

3) 상해 강남 제조총국의 번역 서양서 목록은 『격치회편』1876년 4월호에 처음 등장한다. ‘강남 기기제조총국 번역 각종서서 가목단제(江南機器製造總局 繙譯各種西書價目單在)’(격치서원에서 판매함)에 등장하는 번역 서양서는 총38종으로 연사지(連史紙)와 새련지(賽連紙)로 인쇄하였으며, 그 밖의 번각 도서 10종이 들어 있다. 번각 도서는 기존의 번역 서양서이거나 중국 경서이다. 그 이후 각종 번역 서양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할 ‘역서사략(譯書事略)’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사략은 『격치회편』 1880년 6월호부터 8월호까지 3회에 걸쳐 연재되었는데, 이를 묶어 『역서사략(譯書事略)』이라는 1종 서책으로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 책은 서울대 규장각(규 중 5406)에 소장되어 있다.

큰 이득을 얻었다. 중국에서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격치회편』의 광고에 해당하는 이 글은 신문 발행의 취지, ‘회편’이라는 제목을 사용한 이유, 서양서 번역의 의미 등을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처럼 중국에서도 근대 지식 형성 과정에서 번역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다.

2. 서양서 번역과 언어관

이와 같은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학습이다. 특히 중국어를 중심으로, 서양인의 경우 어떻게, 왜 중국어를 배워야 하는가⁴⁾를 고민해야 하며, 중국인의 경우 자국어와 서양어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된다.⁵⁾ 특히 서교(西教)와 격치학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서양 학문을 배우기 위해 출양(出洋)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서양어 학습이 강조되는 경향이 생겨났고, 이에 따라 자국어를 경시하는 풍조도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양 학문을 학습하는 일이 오직 서양 문자여야 한다는 주장은 마땅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4) 서양인의 중국어 학습과 관련된 대표적인 저서로는 M.T. 예이츠(Rev.M.T.Yates,D.D., 1971)의 『중서역어묘법(中西譯語妙法)』과 같은 학습서가 있다. 이 책은 영문 서문, 색인(Index), 중국문 서문, 범례를 제시하고 중국어 구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숫자(numerals)’, ‘분류사(classifiers)’, ‘인칭 대명사(Personal Pronouns)’, ‘형용사(Adjective)’, ‘성 관련 명사’, ‘명사의 복수형’, ‘부사’, ‘전치사’, ‘접속사’, ‘수량’, ‘시간, 날짜, 월, 연’ 등의 주제별 제시한 학습서이다.

5) 이 점은 한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도 근대 계몽기 등장한 다수의 국문 관련 논설은 외래 학문 수용 과정에서 자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연숙 · 고경진 임경화 옮김(2006)의 『국어라는 사상』(소명출판) 등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본에서도 ‘국어’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영어 공용어론이 등장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3) 습서학불의전사서문설(習西學不宜專事西文說)⁶⁾

(前略) 而彼爲通事商人者 苟盡味乎中國之學 不特無裨於中國轉足 貽害於中國 前此和義未成 西師逼入其以中國之情形虛實輸之於西人 以及接濟西舶 而爲漢奸者 皆此輩爲之也 蓋彼既不知中學 凡孝弟忠信 禮義廉恥 皆不知爲何事 而但知惟利 是圖習成西語西文 卽自以爲奇貨 可居而獲利之道在是矣. 西人復投其所好 而誘之 以利其有不捨中而趨西者哉 卽今日可無庸慮及乎此 而華人之入西人學堂者 初進之際 未始不按日程課 而入門之徑 西語爲首西文次之. (中略) 余曰此非西學之無益 乃不善求西學之益也. 所爲西者 豈但語言文字而已哉. 天文學, 地理學, 礦學, 氣學, 化學, 光學, 重學, 格致學, 機器學, 行船學, 算學, 醫學, 電氣學, 律例學, 各國 史學 何一非學 卽 何一不當學 而顧沾沾 以語言文字爲學 是僅得西學之面. 子而於實學則毫無所知 如是而遂自矜爲諳於西學. 吾不知其所諳者 何學也. 夫西學諸書 近來 皆譯成華文 條分縷晰頗爲詳盡 欲學其學者 但取譯成之書 精而求之 深而思之 先識其規模 繼知其曲折專攻一門 卽 得一門之用. (下略) 저 통사와 상인은 진실로 중국의 학문에 우매하여 중국에 충분한 이익을 주지 못하고 중국에 해를 끼치니 이전 화의가 성립되지 못하고 서양 선교사가 급격히 들어와 중국의 정형과 허실을 서양인에게 전하여 서양 선박이 이르게 하고 간악한 무리들이 모두 그들 무리가 되었다. 대개 저들이 중국 학문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무릇 효제충신 예의염치가 모두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단지 이익만을 알며 이로써 서양 언어와 서양 문자만 배우고자 시도하니 곧 이로써 재물만 탐하고 기거하여 이익만 얻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서양인이 좋아하고 유혹하는 것으로써 이익을 삼고 버리지 않으니 중국이 서양에 기운 것은 금일 가히 이에 더 생각할 것이 없다. 중국인으로 서양인의 학당에 입학하는 자는 처음에 일정(日程) 상의 과업을 살피지 않고, 입문하는 지경에 서양어를 우선으로

6) 『만국공보』 1881.11.19. 제14년 665권, 『신보(申報)』 선록. (이 글은 1893년 6월호에 도 수록되었으며 『퇴재록(退齋錄)』을 출처로 기록함).

삼고, 서양 문자를 다음으로 삼는다. (중략) 나는 말하기를 그것은 서학의 무익이 아니라 서학의 이로움을 잘 구하지 못한 것이다. 서양이라는 것이 어찌 언어와 문자뿐이겠는가. 천문학, 지리학, 광물학, 기학, 화학, 광학(光學), 중학, 격치학, 기기학, 행선학, 산학, 의학, 전기학, 율리학, 각국 사학이 어찌 하나의 학문이 아니며 어찌 마땅히 학문이 되지 않겠는가. 돌아보면 언어와 문자로 배움을 삼는 것은 겨우 서학의 일면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대가 실학에 대해 조금도 아는 바가 없으니 이와 같이 하고 스스로 서학을 이해했다고 자랑하나 나는 그 이해한 것이 어떤 학문인지 알지 못하겠다. 대저 서학의 여러 서적들이 근래 중국어로 번역되어 그 조항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으니, 그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자는 단지 번역된 책으로 정밀히 구하고 깊이 생각하여 먼저 그 규모를 알고 그 곡절을 이해하여 하나의 분야를 전공하면 곧 그 분야에 필요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논설의 필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필자와 친구의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1880년대 중국인이 쓴 글임이 틀림없다.⁷⁾ 더욱이 1893년 6월호 『만국공보』에 재록될 당시 출처를 『퇴재록(退齋錄)』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는 불명확하나 그 당시 중국의 개혁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정된다. 서학이 만연된 상황에서 서양 언어와 문자에 경도되지 말고 중국어로 번역된 서양서로 충분히 학문을 할 수 있다는 사상은 중화주의의 발로라기보다 근대화 과정에서 자국어의 가치와 효능을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⁸⁾ 이러한 흐름에서 서학을 공부하는 좋은 방법

7) 이 글은 『만국공보』에 실려 있지만, 그 당시 중국인이 발행했던 『신보』에서 발췌하여 수록한 글이라는 점도 중국인 필자가 쓴 글이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8) 이러한 의식은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서구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김윤진(2000), ‘충실치 못한 미녀들과 프랑스 고전주의’(원운수 편 의 『언어와 근대정신』, 서울대출판부)에서는 ‘번역과 언어의 성격을 설명한 바 있는데, 16·17세기 프랑스에서도 번역이 산문 문학의 발달과 언어 정신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서술한 바 있다. 번역의 필요성과 자국어의 가치를 인식하는 정신은 근대 학문 형성 과정에서 한국과

에 관한 다음 논설도 그 당시 중국어의 기능을 인식한 논설의 하나로 볼 수 있다.

(4) 논교습서학양법(論教習西學良法)⁹⁾

中國自與泰西各國通商以來 西學最關緊要 中國之人 亦未嘗不知之. 故或延請西師在中國 開館授徒 或不惜重費 送華童出洋英法德諸國 爲莊嶽之置數年以來 華人之通西語 工西文者 亦日漸加多矣. 然而西師以教授華童便則便矣. 而西師於西國 言語文字以及一切西法 固無不至精 且博卽其悉心教授 亦未始不竭盡所長 而於中國之規矩禮數 則究茫乎. 一無所知卽有能兼通華文華語者 亦不過知其文解其語而已. 此外則中西究有所扞格也. 華童當幼學之時 專事西學 而置中華禮儀文物於度外於心 終有所不安卽造就仍有所限 而不能使中西之合同 以化此一病也. (下略) 중국이 태서 각국과 통상한 이래 서학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으며 중국 사람도 미상불 그것을 안다. 그러므로 중국에 있는 서양 교사를 초빙하고 학관을 열어 학도를 가르치며, 혹은 많은 비용을 들여 중국 아동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에 보내어 장차 수년 이래 중국인이 서양어를 알고 서양 문자를 공부하는 자가 날로 증가하여 많아졌다. 그러나 서양 교사가 중국 아동을 가르치는 것은 편할 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양 교사가 서국의 언어 문자로 일체 서법(西法)을 가르치니 진실로 정통하지 못하고 평범할 뿐이니 곧 그 진심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 또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며 중국의 법식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망연할 뿐이다. 하나도 이는 바 없으니 중국 문자와 중국어를 모두 잘하는 사람도 또한 그 문자를 알고 그 말을 이해할 뿐이다. 그밖에 중국과 서양을 연구하는 일이 장애가 될 뿐이다. 중국의 아동이 어린 시절 배울 때 서학만을 오로지 하고 중국 예의 문물을 도외시하는 마음을 가지면 결국 안전하지 못한 것이며 장차 중국과 서양이 같아지게 할 수 없으며 그것이 하나의 병폐이다.

일본에서도 빈번히 찾아볼 수 있다.

9) 『만국공보』 1882.10.20. 제15년 711권. 『신보(申報)』를 발췌한 글임.

이 논설에서는 서양에 유학하는 중국인 학습자가 서양어와 서양 문자를 먼저 공부함으로써, 중국어와 중국 문자, 중국의 법식을 등한시하는 일이 발생함을 비판한다. 이러한 의식은 1880~1900년대 초까지 양무론(洋務論)이 만연한 중국에서 중국 중심의 학문이 필요함을 일깨우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번역이 중요함을 인식하는 요인이 되었다.

Ⅲ. 서양서 번역과 보급 상황

1. 역서사략(譯書事略)의 번역론과 번역서

『격치휘편』 1880년 6월호 ~ 8월호에 연재된 프라이어(傅蘭雅)의 ‘역서사략(譯書事略)’은 중국의 근대 학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서양서 번역 상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자료이다. 이 글은 ‘사략(事略)’이라는 표현과 같이, 역서와 관련된 사건을 간략히 정리한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강남 제조총국 번역 서서사략(江南製造總局 翻譯西書 事略)’이다. 이 글은 강남 제조총국의 번역 사업과 관련한 프라이어의 글을 수록하고, 제1장 논 원류(論源流), 제2장 논 역서지법(論譯書之法), 제3장 논 역서지익(論譯書之益), 제4장 논 역서 각수목 여 목록(論譯書各數目與目錄)을 제시하였다. ‘사략’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5) 江南製造總局 繙譯西書 事略¹⁰⁾

江南製造總局內 設繙譯館十餘年 遠近諸君幾若共聞. 然其中本末補益 倘有未詳知者 屢承顧聞 且常有西人書緘頻寄訊 此館之源流 問譯書之理法

10) 『격치휘편』 1880.6.

究察所用各物之名 訪求所譯西書之目 然一人事繁難盡酬應 故將譯書大略撰成西書一冊. 所有各事 共分要件四章 而局中書名 依賴附入並錄以撰書人名 譯書人名 筆述人名 刊書年歲 及 每書本數 每書價錢 另有局外所譯之書 亦登其目錄 以便西人有所檢閱 不必另向他書搜求 因自備資斧印成 此書分送西國朋友 並樂傳格致西人 然書爲西文華友不便披覽 若僅補益西人(中略) 光緒六年 端陽月 傅蘭雅 敘. 강남 제조국 내에 번역관을 설치한 지 10여년 원근의 여러 친구들이 그 일을 들은 바 있으나 그 일의 본말과 이로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여러 차례 들은 바 있다. 또한 일찍이 서양 사람의 서적을 찾아 살피고자 하면 이 서적관이 원류가 된다. 역서의 이법을 묻고, 필요한 각 사물의 이름을 살피며, 서양서를 번역한 목록을 찾아 구하면 된다. 그러나 이 일은 한 사람의 일로는 번잡하고 어려우며 그에 따르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장차 서양서를 번역한 대략의 일을 편찬하여 하나의 책을 만드니, 각각의 사안을 4장으로 구성하니, 번역국 내의 서명(書名)과 편찬자 이름, 역서한 사람 이름, 필술한 사람 이름, 간행 연도 및 각각의 책의 권수, 책값 등을 덧붙여 기록한다. 번역국 이외의 번역서는 별도로 그 목록을 기록하여 서양인이 찾아보는 데 편리하게 하며, 별도로 다른 책을 찾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이로써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여 인쇄하며 서국 친구들에게 이 책을 보내고, 아울러 서양인의 격치를 즐겁게 전하며 서양 문자로 된 책을 중국인 친구들이 보는 데 불편하지 않게 하며 다소 서양인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다. (中略) 광서6년 단양 월 프라이어 씀

강남 제조총국의 번역관이 설립된 것은 이 글이 쓰인 광서6년(1880)보다 10여 년이 앞선 1868년으로 확인된다. 이는 제조총국이 설립된 1865년부터 3년이 지난 후의 일인데, 제조총국과 번역관 설립에는 이홍장(李鴻章)·중국번(曾國藩)의 영향이 컸다. 이 점은 제1장 ‘논 원류’에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번역관의 서양 서적 번역은 1867년 겨울 서수(徐壽)와 화형방(華蘅芳) 두 사람의 공이 컸다고 하며, 1862년(동치 원년) 3월 중국번(호는 문정공)이 안경부(安慶府)에서 격치·제조

에 능한 사람 8명을 선발하여 등용했는데, 그 당시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시기 화형방(華蘅芳)은 중국번의 도움으로 남경서국에서 간행한 마테오리치(중국명 利瑪竇)의 격치서와 알렉산더 와일리(중국명 偉烈亞力)의 『기하원본(幾何原本)』, 『대미적(代微積)』, 요셉 에드킨스(중국명 艾約瑟)의 『중학(重學)』, 목해서관의 『박물신편(博物新編)』 등을 모아 번각했으며, 서수(徐壽)는 서양의 계량법을 적용하여 배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 사략에서 역서의 필요성은 제3장 ‘논 역서지익’에서 자세히 논하고 있다. 역서의 이익을 논한 이 글에는 서양인으로서 중국 문자를 이해하는 자가 많지 않고, 중국 학동(生童)을 구라파에 보내어 공부하게 하나, 외국에 간 사람들이 중국에 돌아와 배운 바를 전수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역서가 지식 보급의 중요한 수단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번역관의 설립이 본국의 법으로 서국의 유익한 학술을 배우는 길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6) 論譯書之益¹¹⁾

(前略) 此繙譯館已設數年 所有費用 資國帑 可見此舉 必有益於中國者也. 中國雖已有書文 最多視爲珍重 以雖待來辦公事 與傳教之西人若何 然明知學術一道 不在一國一邦 故雖視西人爲夷狄之邦 亦樂學其有益爲中國之事 惟必依本國之法以學 否則棄以不取 如與西國和約許 西人傳教似爲不得已之事 然考究西學 毫無牽強 皆爲請教西人者也 凡見西國有益學術則不惜工費 而譯成書 以便傳通全國 可見中國不獨甘心願學 且肯出資求得交涉事內 此爲勝學泰西 無人不宜稱頌者也. 이 번역관이 이미 설립된 지 수년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로 하니 가히 이 일이 반드시 중국에 유익할 것이다. 중국이 비록 서문이 가장 많고 진중하나 모름지기 공사를 주관하며 서양인이

11) 『격치휘편』 1880.7.

전교하는 일을 어찌할 것인가. 그러나 학술 하나의 도리를 아는 것은 한 국가나 한 나라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서양인을 오랑캐의 나라로 간주하더라도 또한 중국에 유익한 일을 즐겨 배워야 한다. 생각전대 본국의 법으로서 배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버리고 취하지 않아야 한다. 서국과 조약을 허락하고 서양인이 전교하는 일과 같은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그러나 서학을 연구하고 조금도 이를 따르지 않는 일은 서양인을 모두 교화하는 일이 된다. 무릇 서국에 유익한 학술을 보면 그 비용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번역하여 책을 만들어 이로서 전국에 유통하게 하면 가히 중국이 배우는 일을 홀로 즐기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며, 또한 자본을 만들어 교섭하는 일을 수궁하면 이는 태서인보다 나아지는 것이며, 마땅히 칭송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논설에서는 그 당시 중국에서의 서양서 번역 상황과 몇 종의 학관(學館,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습 방법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그 당시 서양 전교사가 중국어를 배우기 어려워하고, 일부 학관에서 서양 학술에 대해 서양어로 수업을 하는 까닭은 학습자가 경험으로 서양 문자를 익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 접촉 과정에서 자국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이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역서사략’에서 언급한 역서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2장의 ‘논 역서지법’이 이에 해당하는데, 서양서 번역과 관련한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7) 論譯書之法¹²⁾

西人嘗云 中國語言文字最難爲西人所通 卽通之亦難 將西書之精奧譯至中國 蓋中國文字最古最生而最硬. 若以之譯泰西格致與製造等事 幾成笑談. 然中國自古以來最講求教門與國政. 若譯泰西教門或泰諸國政則不甚難. 況近來西國所有格致門類甚多名目尤繁 而中國前無其學與其名焉 能譯妥誠屬不能 越之難也等語. 然推論此說實有不然. 蓋明時利瑪竇諸人 及今各譯書之人 並前未遇有甚大之難以致中止 譯西書第一要事爲名目. 若所用名目 必爲華字典內之字義 不可另有解釋則譯書事本不能成. 然中國語言文字與他國 略同俱爲隨時逐漸生新實非一旦 而忽然俱有. 故前時能生新者則後日亦可生新者 以至無窮. 近來中國交涉事件多 一年則新名目 亦必每年增廣 如中國聖諱每行禁用則能定寫 以何法代 以何字而全境內 每年所改所添之字 則難爲國家定奪 如貿易 或交涉事內 有新意新物 必設華字 新名始能明顯 然所設新名間 有文雅者間 有粗拙者 如前西人與華人所定各名常有蠢 而不能久行者 蓋各國所設名目. 서양인이 일찍이 말하기를 중국의 언어와 문자는 서양인이 소통하기 가장 어렵다고 하였으니, 곧 소통 또한 어려워 장차 서양 서적을 정밀히 번역하여 중국에 유통하는 것이 어렵다. 대개 중국의 문자는 가장 오래되었으며 가장 어렵다. 만약 이로써 태서의 격치와 제조 등과 관련된 것들을 번역하면 다소 우스운 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고로 교문(教門, 종교)과 국정을 가장 많이 연구하여 왔다. 만약 태서의 교문(종교)이나 국정을 번역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하물며 근래 서양의 격치 학문이 매우 다양하며 명목이 번잡하나 중국은 이전에 그 학문과 명목이 없었으니 능히 이를 번역하는 것은 진실로 가능하지 않아 어려움을 극복하기 쉽지 않고 그 이론을 추론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명나라 때 마테오 리치 등 여러 사람과 지금 역서를 하는 사람이 모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때문에 역서를 중단한다. 서양서 번역에서 제일 요건은 명목을 정하는 것이다.(번역어 창출 과정) 만약 필요한 명목(명사)이 있다면 반드시 중국 자전 내의 자의(字義)로 해야 하는데, 해석이 불가능하면

12) 『격치휘편』 1880.6.

번역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중국의 언어와 문자는 타국에 비해 대략 비슷하며 수시로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일이 적지 않아 갑작스럽게 생겨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전에 생겨난 것이 후일 또한 새롭게 탄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무궁해진다. 근래 중국의 교섭 사건이 많아 일 년이면 곧 새로운 명목이 또한 매년 증가하니, 중국의 성휘(聖誥, 성인의 이름)로 모든 행위를 금지하면 어느 법으로 대신하며, 어느 글자로 전모를 대신하겠는가. 매년 고쳐 첨가하는 글자는 곧 국가가 정하고 금지하기 어려우니, 무역이나 교섭 사건 내의 새로운 사물의 새로운 뜻을 반드시 중국 문자로 하고, 신명(新名, 신명사, 신어)을 드러내어 쓰기 시작하면, 설정된 신명사 간의 우아한 것이 있고, 조졸(粗拙)한 것이 있는 것과 같으며, 이전 서양인과 중국인이 각각 정한 신명사에도 맞지 않는 것이 있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대개 각국이 명목(신명사, 신어 등)을 정하는 것과 같다.

이 글에 따르면 동서 교류 과정에서 서양인과 중국인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은 중국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동서의 학술 수준과 역사를 고려할 때 서양 학술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서양서를 중국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까닭은 동서의 명목(名目)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번역 과정에서 ‘신명(新名, 신명사 또는 신어, 번역어)’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나타난다. 달리 말해 번역어(翻譯語)를 창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논역서지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8) 此館譯書之 先中國諸士皆知名目爲難 欲設法以定之議多時後則略定要事有三¹³⁾

一. 華文已有之名. 設疑一名目爲華文已有者 而字典內無處可察則有二

13) 『격치휘편』 1880.6.

法. 一. 可察中國已有之格致 或工藝 等書 並 前在中國之天主教師 及 近來耶蘇教師 諸人所著 格致 工藝 等書. 二. 可訪中國客商 或 製造 或 工藝 等 應知此名目之人.

二. 設立新名. 若華文果無此名 必須另設新者 則有三法. 一. 以平當字外加偏旁而爲新名 仍讀其本音如 鑄鉀布砂 等 或 以字典內不常用之字 釋以新義 而新名 如鉑鉀鉍鉍 等 是也. 二 用數字解釋其物 卽以此解釋爲新名 而字數以少爲妙如 養氣 輕氣 火氣 輪船 風雨表 等 是也. 三 用華字寫其西名 以官音爲主而西字各音 亦代以常用同之華字 凡首譯書人已用慣者則襲之華人可一見 而知爲西明所已設之新名不過暫爲試用 若後能察得中國已有古名 或見所設者不妥則家更易.

三. 作中西名字彙: 凡譯書時所設新名 無論爲事物人地等名 皆宜隨時錄於華英小簿 後刊書時可附書末 以便閱者核察西書 或關諸西人而各書內所有之名 宜彙總書製成大部 則以後譯書者有所核察可免混名之弊

이 서관에서 책을 번역하는 것은 먼저 중국의 여러 선비들의 명목을 아는 것이 어려워, 범을 정해 의논한 연후 대략 세 가지 사항을 정했다.

일. 중국에 이미 존재하는 명목: 한 명목이 중국 문자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사전에 없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중국에 이미 존재하는 격치 혹은 공예 서적 등과 이전 중국 천주교사 및 근래 야소교사 여러 사람이 지은 격치 공예 등의 서적을 살피는 일이다. 둘은 중국을 찾는 상인, 제조 혹은 공예 등에서 이들 명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응용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명목을 만드는 일: 만약 중국에서 이들 명사가 없다면 반드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요신(鑄鉀), 포자(布砂) 등과 같이 신명사 곁에 평상시 쓰는 글자를 부가하여 그 본음을 읽도록 하거나 박갑(鉑鉀, 氣鉑酸鉀, 화학 용어의 하나임) 고모(鉍鉍)와 같이 사전에 상용하지 않는 글자로 새로운 뜻을 해석하여 신명사로 쓰는 방법이 있다. 둘은 수자로 그 물질을 해석하는 것으로, 이 해석이 신명사가 되며 글자 수가 적어 적절하다. 양기(養氣), 경기(輕氣, 수소), 화기(火氣, 중국 의학 용어),

운선(輪船), 풍우표(風雨表) 등이 그것이다. 셋은 관음(官音)을 위주하여 서양 각음을 중국 문자로 베끼는 것으로, 또한 같은 중국 문자를 상용하여 대신 하며, 무릇 번역하는 사람이 이미 습관적으로 사용하여 중국인이 볼 수 있고 서양에서 밝혀 새로운 명사가 된 것은 잠시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만약 후에 능히 중국의 옛날 이름에서 찾을 수 있거나 만든 것이 타당하지 않으면 다시 쉽게 고치도록 한다.

삼. 중국과 서양의 자휘(字彙)를 만들: 무릇 번역할 때 사물이나 인지명과 같이 새로운 명사를 만들면 마땅히 중국어와 영어에서 채록한 작은 장부에 따라 대조하고 후에 간행할 때 책 말미에 부가하여 보는 사람이 서양서의 핵심을 편히 보도록 하고, 혹은 책 속의 서양인과 관련된 명사가 있으면 총서를 제작하여 후에 번역하는 자가 살펴 혼란스러운 명칭이 생기는 폐단을 면하도록 한다.

이 원칙은 번역 과정에 적용하는 일종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존재하는 명목을 살리는 것은 중국 전통의 학술이나 번역관 설립 이전의 번역 서양서에 나타나는 명목을 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후대 중국의 번역어 형성의 주요 원칙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태도는 주기여(周起予, 1913)의 『신명사훈찬(新名詞訓纂)』(掃葉山房 石印本, 上海)에도 나타나는데, 이 책은 근대 중국의 신학술어(新學術語)의 유래를 중국 고전에서 찾아 고증하고자 한 책이다. 이 책에서 당영상(唐詠裳)은 서문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어를 연구하는 학자가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우리는 것은 명사로, 신어는 “단어의 새로운 뜻이 옛날의 의미를 갖고 닳은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주상부(周商夫, 주기여의 호)가 『신명사훈찬』을 지은 뜻이 이에 있다고 밝혔다. 이 책에는 700여 개의 신학술어가 정리되어 있으며, 이들 학술어는 모두 중국 고전과 관련을 맺고 있는 용어들이다.¹⁴⁾ 새로운 명목을 만드는 일은 신어를 창조하는 일을 의미하며, 중

국에서는 서양어를 음차하기보다 ‘양기, 경기, 화기, 운선, 풍우표’ 등과 같이 기존의 어사(語辭)를 활용하여 신학술어를 창조한 사례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원칙인 ‘자휘(字彙)’는 사전을 만드는 일을 의미한다.

제4장은 역서 목록을 소개한 장이다. 1871년 『운규약지(運規約指)』, 『개매요법(開煤要法)』을 번역한 이래, 1880년까지 번역한 98종 225본을 유형별로 소개하고, 익지서회의 번역본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서양 선교사들이 스스로 번역한 것을 추가하여, 그 당시 번역 또는 저술된 서학서 목록을 대부분 제시하였다. 번역관의 역서는 제1류 ‘이미 간행하여 판매하는 서명’(찬술인(撰述人), 역서인(譯書人), 간서 연도(刊書年度), 서본(書本, 책수), 가격 등), 제2류 ‘번역을 한 상태이나 아직까지 간행되지 않은 것’. 제3류 ‘전체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당시 번역 상황은 다음 표에 나타나 있다.

(9) 부문별 번역 상황¹⁵⁾

각문등서(各門等書)	기간성(既刊成)	미간(未刊)	미역전서(未譯全書)	기역출(已譯出)
산학측량(算學測量)	22부(部)	52본(本)	2부 8본	3부 5본
기기(汽機)	7부 17본	3부 6본	1부	2본
화학(化學)	5부 19본	1부 1본	1부	4본
지리(地理)	8부 12본	0	2부	9본
지학(地學)	5부 12본	0	0	0
천문 행선(天文 行船)	9부 27본	3부 4본	0	0
박물학(博物學)	6부 14본	4부 5본	1부	1본
의학(醫學)	2부 8본	1부 6본	2부	10본

14)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 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해외에서는 Lin Ming Chang(2013), A New Perspective on the Creation of Neologism, Acta Linguistica Asiatica. Vol 3-1. pp47-59.

15) 『격치휘편』 1880.7.

공예(工藝)	13부 15본	9부 26본	0	0
수륙병법(水陸兵法)	15부 41본	9부 26본	2부	2본
연대표· 신문(年代表 新聞)	6부 10본	1부 1본	0	0
조선(造船)	0	3부 13본	1부	1본
국사(國史)	0	5부 16본	0	0
교섭공법(交涉公法)	0	2부 26본	0	0
탄건(呑件)	0	2부 2본	0	0
계(計)	98부 계225본	45부 계142본	13부	43부

이들 번역서 가운데 상당수는 조사시찰단으로 파견되었던 어윤중이 상해에 들렀을 때, 번역관에서 견문한 바 있으며, 영선사로 파견되었던 김윤식도 제조총국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있다.¹⁶⁾

2. 익지서회(益智書會)의 번역 서양서

익지서회(益智書會)는 1877년 상해에서 조직된 단체로 중국의 선교 및 지식 보급에 기여했던 단체이다. 『격치휘편』의 역서사략에서도 익지서회 간행 서목을 제시한 바 있듯이, 1880년까지 이 단체에서 간행한 서적은 42종이다. 이에 대해 ‘익지서회 휘자간서 계(益智書會 彙字刊書 啓)’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양서 번역·간행 및 보급 취지를 밝히고 있다.

(10) 益智書會 彙字刊書 啓¹⁷⁾

(前略) 邇來 江南製造局 北京 同文館 亦將西國新考格致 製造 理法 繙釋 百有餘種已刊行 問世凡西術之深奧者 華友盡得目擊 兼有各西士自著格致

16) 강미정·김경남(2017), 근대 계몽기 한국에서의 중국 번역 서학서 수용 양상과 의의, 『동악어문학』 71, 동악어문학회, pp.253-288.

17) 『만국공보』 1880.11.27. 제13년 616권.

書 十餘種 亦已行世俱屬有益於華人者. 惟此各書文深旨奧 局中人 固可通明 局外人 難尋旨趣 且常有華士欲究西學無暇 專致此書 竟至無門 可入 苟獲簡而易明者 則必把玩悅讀之 以爲升堂入室之根 基二年前 西人立會意欲特著近新書 以使初學易知 童蒙樂讀 因請西士六人作爲董事 則北京 丁韞良, 烟臺 韋廉臣, 登州 狄考文, 上海 傅蘭雅, 林樂知, 香港 黎力基. 又請上海西士 慕維廉 襄辦銀款 現因 丁韞良回國 公舉慕維廉爲總董. 是謂之益致書會 另在通商各埠鎮託該處西人代辦售書等事. 各董事已數次聚議 其欲著格致書 四十二種 請寓華西士 凡通曉華文者 各量才而著之(下略) 근래 강남 제조국, 북경 동문관 또한 장차 서국의 격치, 제조, 이법 등을 새로 고찰하여 번역하여 간행한 책이 백여 종으로, 무릇 서양 학술의 심오한 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을 중국 친구들이 목격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각 서양 학사들이 스스로 격치서 10여 종을 저술하여 간행한 것이 또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중국인들에게 이로움을 준다. 생각건대 이 각 서적의 글이 심오하고 취지가 오묘하여 국중 사람들은 진실로 가히 통할 수 있고 국외인들은 그 지취(旨趣)를 생각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일찍이 중국 학사들이 서학을 공부할 겨를이 없으면 오직 이 책을 오로지 하여 가히 들지 않은 부분이 없을 것이다. 진실로 간결하고 쉽게 이해하고자 하면 곧 이를 반드시 즐겨 읽어야 하며, 이로써 당에 오르고 입실하는 근본을 삼아야 한다. 2년 전 서양인이 하나의 회를 만들어 특히 근래의 새로운 서적을 저술하여 초학자가 쉽게 익히도록 하고, 어린 이들이 즐겨 읽게 하고자 하였는데, 서양 학사 6명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게 하였으니 곧 북경의 정위량(丁韞良, 윌리엄 마틴, 1827-1916), 연대의 위렴신(韋廉臣, 알렉산더 윌리엄슨), 등주의 적고문(狄考文, 칼빈 윌슨 매티어, Calvin Wilson Matteer, 1836年-1908年), 상해의 부란아(傅蘭雅, 존 프라이어), 임낙지(林樂知, 알렌), 홍콩의 여역기(黎力基, 루돌프 레슬러, Rudolf Christian Friedrich Lechler, 1824-1908) 등이 그들이다. 또 상해의 서양 학사 모유렴(慕維廉, 윌리엄 뮌헤드, William Muirhead 1822-1900)가 은관을 내어 현재에 이르렀으며 정위량이 회국하고 모유렴을 공개적으로 천거하여 총 감독을 맡게 했다. 이것을 일컬어 익치서회라고 하는데, 별도로 통상하는 각 항구와 진에 의뢰하여 서양인을 대신하여 서적을 발매하는 일을 맡겼다.

각 감독이 수차 모여 회의를 하여 저술하고자 한 격치서 42종을 중국에 거주하는 서양 학자들에게 청하고, 중국어에 능통한 자가 각자 재능에 따라 저술하였다. (下略)

‘역서사략과 ‘익지서회 휘자간서 계’의 역서 목록을 비교하면, 42종의 서목은 동일한 서목이다. 다만 낙선생(駱先生)을 저자로 한 『교습지법(敎習之法)』은 역서사략에서 『교육지법(敎育之法)』으로, 합사랑(哈師娘, 벤자민 홉슨, 중국명 합신)의 저서인 『심산수덕(心算數德)』은 『심산수학(心算數學)』으로 나타나, 어떤 책명이 정확한지는 실물을 찾아 고증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익지서회는 창립 직전인 1876년 1월부터 윌리엄스(모유림)와 에드킨스(애약슬)이 주도하여 『익지신록(益智新錄)』이라는 일간 신문을 발행하였다. 이 신문은 서교 전교(西敎 傳敎)와 격치(格致), 근문(近聞)을 중심으로 하는 『만국공보』와 비슷한 형태의 신문으로 볼 수 있는데, 『만국공보』에서도 이 신문을 빈번히 전재(轉載)하기도 하였다. 특히 『만국공보』 1877년 9월 2일자 ‘익지신록 목록 평등(益智新錄 目錄 便登)’은 창간 이후 16개월 사이의 기사 목록을 제시하여, 이 신문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11) 益智新錄 目錄 便登¹⁸⁾

益智新錄之設一年餘矣. 書中所登各論 皆益人神智者也. 是書出自英國慕維廉 艾約瑟 兩先生之手筆居多四遠馳名 閱者爭購本館 經理此事仍恐未盡週知 特將歷次目錄 概登公報俾欲購益智新錄者 一目瞭然 此書每月出一本 每本三十章 白紙印刷頗稱全璧 計價一洋 得書十二本一年之中 所費無多獲益非淺 況 慕艾 兩君久居中國著作如林 其刊行於世者 無不以先睹為

18) 『만국공보』 1877.9.2.

快 聞其名者 當知此書 早爲有識者共賞矣. 此啓益智新錄目錄刊登於左(下略). 『익지신록』을 창간한 지 일 년이 넘었다. 서중에 실은 각론은 모두 인신(人神)의 지혜로운 것이다. 이 책은 영국 모유렴(위렴신)과 에약슬(에드킨스) 두 선생의 글에서 나온 것으로 사방에 이름을 날려 보는 사람이 본관에 다투어 구매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두루 알리지 못할까 두려워 장차 지금까지의 목록을 모두 『공보』(만국공보)에 등록하여 『익지신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 이 책은 매월 1본을 내며, 매 본은 30장으로 백지로 인쇄하여 자못 하얀 옥과 같다고 일컬어진다. 값은 1양(서양 돈)으로 1년치 12본을 살 수 있으며 비용에 비해 얻는 이익이 적지 않다. 하물며 모유렴과 에약슬 두 사람은 오랜 동안 중국에 거주하면서 저작하여 간행한 것이 숲처럼 많으니, 먼저 구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유쾌한 일이며, 그 이름을 들은 사람은 마땅히 이 책을 알게 되어 일찍이 식자층이 모두 칭찬하였다. 이에 『익지신록』의 목록을 다음에 등재한다.(하략)

『익지신록』은 격치, 지리, 서양 종교, 로마 사적, 천문 등의 서양 학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근사(近事)를 수록하였다. 이러한 지식 보급 노력은 중국의 근대 지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1889년 추도(鄒弢, 1850-1931)가 중심이 된 ‘익지회(益智會)’도 그 중 하나이다. 이회는 영국 선교사인 프란시스 리트터 호크 포트(Francis Lister Hawks Pott, 1864-1947, 중국명 卜舫濟)와 추도(秋弢, 1850-1931)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지식 보급 단체로, ‘익지(益智)’의 본뜻이 ‘격치를 밝혀 견식을 증장’하는 데 있으며, ‘회(會)’는 ‘사람들이 모여 이치를 탐구하는 것’을 일컫는다고 하였다.¹⁹⁾ 곧 익지서회는 ‘익지’를 통해 근대 지식을 탐구하고 보급하고자 하는 자생적 단체의 생성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 『만국공보』 1889.11. 익지회병언(益智會并言).

3. 광학회(廣學會)의 서국 교양서

광학회는 1887년 중국 상해에서 해관 총세무사였던 영국인 하트(赫德), 윌리엄슨(慕維廉), 리처드(李提摩太)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든 일종의 출판 기구이다. 이 단체의 전신은 1884년 설립된 동문서회(同文書會)로 1890년부터 1911년까지 약 400여 종의 서적을 출판하였다. 이 회의 설립 취지는 『만국공보』 1992년 2월호 ‘광학회서(廣學會序)’에 잘 나타나 있다.

(12) 廣學會序²⁰⁾

(前略) 現西國善士 看華人於養民之法 籌之甚難行之愈緩 因惻然動念爰立一會 名爲廣學會. 其意要 使各省文武州縣守備各官 而上又自各書院山長學官 及 名下文人深悉各國養民善法 然後愚民亦可由此漸開門徑 苟能知廣學會之利益 (중략) 茲將各國生養之法 擇其有益中華富國利民之事 彙爲卷帙 或刊於公報 或編輯成書 分散於各省 使明理人閱之 好擇善而從. 此會設有四年 倡首者 總稅務士 赫君德 其捐貲幫刻成書者 有各海國 西國官商善士 倘蒙中國各直省(下略) 현재 서국의 학사들이 중국의 양민하는 법을 보면 그 곤란함이 심하고 더더 가없는 마음이 생겨 하나의 회를 창립했으니 그 이름은 광학회이다. 그 취지는 각성 문무관이나 주현을 수비하는 각 관리들 그리고 위로는 각각의 학교나 지방의 학관 및 아래로는 각국 양민의 좋은 법을 탐구하고자 하는 문인이 탐구하게 하며, 그런 연후에 일반 백성 또한 이로 말미암아 점차 문호를 열면 진실로 능히 광학회의 이익을 알게 될 것이다. (중략) 이에 장차 각국의 생민하는 법에서 중국의 부국과 백성에게 이로운 점을 가려 모아 권질(卷帙)을 이루고 혹은 공보로 간행하거나 혹은 책을 만들어 각성에 나누어 주어 이치를 밝히면, 보는 사람이 좋은 점을 가려 따르게 될 것이다. 이 회가 설립된 지 4년인데 처음 주도한 사람은 총세무사 혁덕으로 그 출연금으로 책을 만든 것이 각 해국과 서국 관리와 상인 학자들, 중국 각성에 영향을 주었다. (하략)

20) 『만국공보』 1992.2.

이 서문에 나타나듯이, 광학회 창립 목적은 서적 출판을 통한 지식 보급에 있었다. 『만국공보』 1892년 5월호 ‘분설광학회장정(分設廣學會章程)’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매월 주요 문제를 정하여 논하고 저술하여 만국공보에 등재하며 간행하는 일’, ‘별도의 서학서원(西學書院)을 설립하고 고시(考試)하도록 하는 일’, ‘신서적을 저술하고 보급하는 일’ 등의 주요 사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학회 서적 가운데 주목할 점은 창설 이후 본격적으로 간행한 ‘서국 교양서(西國 教養書)’이다. 우리나라에서 광학회 서목은 1895년 학부 편찬 『태서신사남요(泰西新史攬要)』 부록에서 ‘학부 편집국 서적’과 함께 등장한다. 허재영(2015)에서는 이 서목에 들어있는 서적이 대부분 국내에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이들 서적이 만들어진 과정과 국내 유입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못한 상태이다.

‘서국 교양서 목록’은 1893년 『만국공보』에 지속적으로 광고되었는데, 광고문에 ‘상해 광학회 인발(上海 廣學會 印發)’이라는 문구를 통해 볼 때, 번역자와 번역 시기, 간행처가 다를지라도 광학회에서 취합하여 다시 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서목에는 저자에 따라 윌리엄 마틴(丁韞良), 파베르(花之安), 프라이어(傅蘭雅), 윌리엄슨(韋廉臣), 뮌르헤르(慕維廉), 리처드(李提摩太)의 저서를 나열하고, 명인잡저서(名人雜著書), 서학보(西學報)를 별도로 제시하였다.

마틴의 저서로는 『증정 격물입문(增訂 格物入門)』, 『문견선록신편(聞見選錄新編)』, 『부국책(富國策)』, 『공법회통(公法會通)』, 『만국공법(萬國公法)』, 『송초지장(星軺指掌)』, 『공법편람(公法便覽)』 등 6종이 있으며, 파베르의 저서로는 『자서조동(自西徂東)』, 『마가강의(馬可講義)』, 『노가강의(路可講義)』, 『완색성사(玩索聖史)』, 『성해연원(性海淵源)』, 『서국학교(西國學校)』, 『교화안(教化案)』 등 7종이 들어 있다. 프라이어는 가장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산법수지(算法須知)』, 『화학수지(化學須知)』, 『기학수지(氣學須知)』 등 격치 각 분야에 대한 35종의 저서를 남겼다. 윌리엄슨은 『격물탐원(格物探源)』, 『기독실록(基督實錄)』, 『치국요무(治國要務)』 등 3종, 뤼르헤르는 『대영국지(大英國志)』, 『지리전지(地理全志)』, 『天文地理』, 『지식오문(知識五門)』 등 4종, 알렌(중국명 林樂知)은 『중서관계약론(中西關繫略論)』, 『열국세기정요(列國歲紀政要)』, 리처드는 『구세교익(救世教益)』, 『삼십일국지요(三十一國志要)』, 『양민유법(養民有法)』 등 9종을 남겼다. 또한 리처드의 미인출 서적 『서국백년래대사기(西國百年來大事記)』, 『구주고금팔대제기(歐洲古今八大帝記)』, 『열국변통흥성기(列國變通興盛記)』, 『시사신론(時事新論)』, 『부국첩경(富國捷徑)』이 들어 있는데, 『서국백년래대사기』는 맥켄지(중국명 馬懇西)의 『19세기 서양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저서이다. 맥켄지의 저서는 『태서신사(泰西新史)』로 번역되었으며 1895년 학부 설립 이후 한국 학부의 교과서로 쓰였다. 명인잡저서 15종, 서학보(신문) 3종을 포함하여 이 광고에 등장하는 서목은 총 82종이다. 이는 『태서신사남요』의 ‘광학회 서목’ 42종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이며, 그 가운데 상당수는 국내에 유입되어 한국 근대 지식 형성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¹⁾

IV. 결론

근대 지식 형성 과정에서 중국의 서양서 번역은 서양 선교사나 외교관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식인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사였다. 『격치휘편』에 등

21) 이에 대해서는 강미정·김경남(2017)에서 좀 더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장하는 ‘역서사략’은 상해 강남 제조총국의 번역관에서 이루어진 역서를 소개하는 글로, 1870년대 서양서 번역 실상을 잘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서양 선교사와 외교관을 중심으로 조직된 익지서회에서 전교와 지식 보급 차원에서 서양서 번역 및 저술 활동에 힘을 기울였다. 이 저서들은 서양인에 의해 저술되었지만 중국어로 출판되었다는 점에서, 번역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1868년 번역관 설립 이후 중국 근대 지식 형성 과정에서 서양서 번역을 주도했던 단체는 ‘격치서원’, ‘익지서회’, ‘광학회’뿐만 아니라 전교를 목적으로 한 ‘중국성교서회(中國聖教書會)’와 같은 단체도 있었다. 『만국공보』 1879년 6월 14일자 제543권에 따르면, 이 단체는 1879년 중국 각 성의 전교를 목적으로 상해에 설립되었으며, 매년 중국과 외국의 신문을 모아 연 1회 자료집을 발행했으며, 윌리엄 마틴의 『천도소원(天道溯原)』, 『천도핵교(天道覈較)』 등의 종교서를 지속적으로 인출(印出)하였다. 이와 같이 서양의 종교서와 격치서를 번역하는 일은 중국 근대 지식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으며, 양적인 면이나 격치서의 질적인 면에서 기존의 학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다. 이들 번역서는 1895년 이전부터 국내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1895년 학부 설립 직후 상당수의 광학회 서적을 번각(翻刻)하거나 언역(諺譯)하여 교과서로 사용했음을 고려할 때, 한국의 근대 지식 형성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서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 지식 형성 과정에서 중국에서도 서양서 번역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이 문제는 『격치회편』의 서문이나 광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번역은 전교뿐만 아니라 실용 지식 전파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둘째, 서양서 번역 과정에서 서양어와 중국어의 가치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학 보급 과정에서 서양 언어 학습에 치중하는 폐단을 지적하는 논설이 빈번히 등장했는데, 『신보(申報)』, 『만국공보』 등에 수록된 논설에서는 서양어 학습과 중국어 학습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글들이 많다. 이는 서학 보급 과정에서 번역을 통한 자국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격치회편』의 ‘역서사략’을 통해 강남 제조총국 번역관의 활동을 확인하였다. 이 사략에는 ‘역서의 이익’과 ‘역서의 방법’ 등이 논의되었는데, 신명목(새로운 번역어) 정립은 번역어 성립 과정을 보여주는 적절한 논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번역관의 번역 서양서 이외에 익지서회와 광학회의 활동 사항을 정리하였다. 익지서회의 번역 서양서는 역서사략에도 언급된 바 있으나 『만국공보』에 수록된 내용은 역서사략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광학회는 1887년 상해에서 서적 출판·보급을 목표로 창립된 단체로, 1911년까지 400여 종의 서적을 출간하여 중국 근대 학문 발달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중국의 근대 학문 형성 과정에서 서양서 번역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각 단체에서 출간한 서적이 매우 방대함을 알 수 있다. 이들 서적은 1880년대부터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1895년 학부 설립 이후에는 교과서로 쓰이거나 근대 계몽기 한국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는데,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번역 서양서의 실태 조사 및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번역어 형성 과정에서 흔히 일본식 학술어로 간주하고 있는 한자 학술어의 유래 문제, 번역서의 내용이 한국 근대 지식 형성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 관계 파악 등의 문제는 중국 근대 학문 발달 과정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없이는 진전

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와 같은 거시적인 문제는 이 논의에서 언급한 각종 번역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 근대 학술어의 성격과 학문상의 영향 관계는 본 연구의 지속적인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참고문헌】

1. 기초 자료

- 김윤식(金允植), 『음청사(陰晴史)』(국사편찬위원회, 1976, 한국사자료총서 6)
어윤중(魚允中), 『중정연표(從政年表)』(국사편찬위원회, 1976, 한국사자료총서 6)
『격치휘편(格致彙編)』 1876.2.~1880.12. 서울대학교 규장각본(분류번호 3121)
『만국공보(萬國公報)』 영인본(影印本, 총60책), 上海書店出版部, 2014. 上海. 中國
『역사사략(譯書史略)』, 1880. 프라이어(傅蘭雅), 서울대학교 규장각본(분류번호 5406)
『중서역어묘법(中西譯語妙法)』, 1871. Rev.M.T.Yates,D.D. 서울대학교 규장각본
(분류번호 11935)

2. 논저

- 강미정·김경남, 근대 계몽기 한국에서의 중국 번역 서학서 수용 양상과 의의, 『동악어문학』 71, 동악어문학회, 2017.
강재언 저·정창렬 역, 『한국의 개화사상』, 비봉출판사, 1981.
권보드래, 『번역어의 성립과 근대』, 『문학과 경계』 1-2, 문학과 경계사, 2001.
김경혜, 『상해의 중국 근대 지식인 왕도(王韜)』,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한중인문학회, 2008, 1.
김선경, 『19세기 전반 중국 개명인사와 서양 개신교 선교사간의 지적 교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김윤진, 충실치 못한 미녀들과 프랑스 고전주의, 원운수 편, 『언어와 근대정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김채수 편저, 『한국과 일본의 근대 언문일치체 형성 과정』, 보고사, 2002.
김효전, 번역과 근대한국: 법학과 국가학 문헌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 한림과학원, 2008.
노재식, 『만국공보(萬國公報)에 나타난 근대 중국사회의 아편문제에 대한 인식 -아편의 피해, 아편무역 반대 및 아편금연을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현대사연구』 47,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2010.
_____, 『만국공보(萬國公報)에 나타난 청말 사회의 비판에 관한 고찰 = 과거제도(科擧制度)와 중국 전통 교육제도 비판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64, 중국사학회, 2010.

- 노재식, 『만국공보(萬國公報)에 나타난 청말 科擧제도와 교육제도의 비판에 관한 내용 연구』, 『중국근대사연구』 51, 중국근현대사학회, 2011.
- _____, 『근대 중국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 연구』, 『진단학보』 113, 진단학회, 2011.
- _____, 『19세기 말 來華 선교사들의 儒敎에 대한 인식』, 『진단학보』 116, 진단학회, 2012.
-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저, 임성모 역, 『번역의 사상』, 이산, 1991.
- 민희수, 『규장각 소장본으로 본 개항기 서양 국제법 서적의 수입과 간행』, 『규장각』 47,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5.
- 박성래, 『중국근대의 서양어 통역사』, 『국제지역연구』 7권 1호, 한국의대국제지역연구센터.
- 박준형·박형우, 『제증원 약물학 번역』, 『의사학』 20-2, 대한의사학회, 2011.
- 박지현, 『17세기 중국에 파견된 예수회 선교사들의 초기 번역과 문자 이해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67,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 백옥경, 한말 세계사 저역술서에 나타난 세계 인식, 『한국사상사학』 35, 한국사상사학회, 2010, pp.173-210.
- _____, 개항기 역관(譯官) 금경수(金景濬)의 대외인식(對外認識) -『공보초략(公報抄略)』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41, 한국사상사학회, 2012.
- 설충수, 『만국공보(萬國公報)』에 나타난 19세기 중국 개신교인의 신명(神名) 문제, 『장신논단』 40, 장신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2011.
- 송용근·김체식 외, 『한국 근대 수학교육의 아버지 이상설이 쓴 19세기 근대화학 강의록 화학계몽초』, 『한국수학논문집』 20-4, 강원경기수학회, 2012.
- 송인재, 『근대 중국에서 중학·서학의 위상변화와 중체서용- 장즈동의 권학편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6, 한림과학원, 2010.
- 야나부 이라키, 김옥희 옮김, 『번역어의 성립』, 마음산책, 2011.
- 양세욱, 근대 번역어와 중국어 어휘 체계의 혁신, 『코기토』 65, 부산대 인문과학연구소, 2009.
- 양일모, 『근대 중국의 서양 학문 수용과 번역』, 『시대와 철학』 15-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4.
- 오미영, 『한일 초기 번역성서의 어학적 연구』, 제이앤씨, 2011.
- 오순방, 『科技啓蒙到小説啓蒙: 晚清時期傅蘭雅的啓蒙活動』, 『중국소설논총』 18, 한국중국소설학회, 2003.

- 오순방, 『청말의 번역 사업과 소설작가 오견인』, 『중국어문논역총간』 14, 중국어문논역학회, 2005.
- 윤영도, 『중국 근대 초기 서학 번역 연구』, 연세대학교, 한국연구재단 연구 보고서, 2005.
- _____, 『중국 근대 초기 서학 번역 연구: 만국공법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 이광린, 『한국개회사연구』, 일조각, 1979.
- 이연숙 지음, 고영진·임경화 옮김, 『국어라는 사상』, 소명출판, 2006.
- 이준환, 『개화기 및 일제 강점기 영화사전의 미시구조와 국어 어휘 및 번역어의 고찰』, 『대동문화연구』8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2012.
- 조광, 『조선 후기 서학서의 수용과 보급』, 『민족문화연구』 4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 차배근, 『19세기말 중국의 西學과 이데올로기』, 『중국현대문학』 33호, 중국현대문학학회, 205.
- 차태근, 『19세기말 중국의 西學과 이데올로기: ‘廣學會’와 『萬國公報』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33,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5
- 최경옥, 『번역과 일본의 근대』, 살림, 2005.
- _____, 『일본 근대 번역한자어의 성립과 한국 수용』, 『번역학연구』 8, 한국번역학회, 2009.
- 최경현, 『19세기 후반 상해에서 발간된 화보들과 한국 화단』,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9,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8.
- 최형섭, 『언어와 번역을 통해 본 17-18세기 중국사회』, 『중국문학』 65, 한국중국어문학회, 2010.
- 한보람, 『1880년대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을 위한 국제 정보 수집』, 『진단학보』 100, 진단학회, 2005.
- 허재영, 『광학회 서목과 태서신사남요를 통해 본 근대 지식 수용과 의미』, 『독서연구』 35, 한국독서학회, 2015.
- _____, 『근대 계몽기 지식유통의 특징과 역술문헌에 대하여』, 『어문논집』 63, 중앙어문학회, 2015.
- 히로다카시, 『개화기 한국어 성서의 번역어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江南製造局刊, 『曾惠敏公 紀澤 文集』, 文海出版社有限公司, 臺灣, 1979.
- 京大人文研究所, 『東方叢書 西學富強叢書(鴻門書局, 1896)』, 京都, 日本, 1976.
- 郭建佑, 『明清譯書書目之研究』, 天主教 輔仁大學 圖書資訊學 碩士學位論文, 2007.
- 馬祖義, 『中國翻譯簡史』, 中國對外翻譯出版公司, 北京, 1984.
- 史春風, 『商務印書館與中國近代文化』, 北京大出版部, 北京, 2006.
- 魏允恭, 『江南製造局記』, 文海出版社, 臺灣, 2005.

Abstract

The Tendency of Translated Books of the West Knowledge and the Dissemination during the Early Modern Time in China and It's Influence to Korea

Heo, Jae-young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tendency of translated books of the West knowledge which contained religion and science during the early modern time in China. These books was translated into Chinese by the group or society which composed of missionaries or diplomats. Most of these books were translated the missionaries, but the writers were Chinese intellectuals.

I found these facts on the Chinese Scientific Magazine called GYEOCHIHUIPYEON(格致彙編) which was published by John Fryer(Chinese name was 傅蘭雅) in 1880. The article of 'Yeokseo Saryak(譯書事略, the outlined affairs about translation) appeared detailing records about the translation notes. I notice on the newspaper which was named Wan Kwoh Kung Pao(萬國公報) published by the society for the diffusion of Christian and general knowledge among the Chinese(edited by Rew.Y.J.Allen, 林樂知).

The needs of translation diffused the modern knowledge on Chinese peoples. Yeokseo Saryak recorded the facts of the office which concerned translation affairs in Sanghai JEJOCHONGGUK(製造總局, total manufacturing office). The IKJISEOHOI(益智書會) was a society which was made of missionaries with the express purpose of missionation. The GWANGHAKHOI was founded by British missionaries, diplomats and merchants in 1887. This society aimed to enlighten the Chinese people. They published many books about religion, science and political issue in Chinese.

The problems were prophets of translation, the value of modern language and how to diffuse the modern knowledge. These problems appeared in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modern knowledge generally. These translated books affected the formation of modern knowledge in the early modern Korea.

Key Word : translation, GYEOCHIHUIPYEON, Wan Kwoh Kung Pao, Wan Kwoh Kung Pao, modern knowledge

허재영

소속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자우편 : hjy435@hanmail.net

이 논문은 2017년 5월 6일 투고되어
2017년 6월 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6월 9일 게재 확정됨.